

내린 눈을 치운 교정의 풍경

겨울은 아무래도 눈(雪)이 압도적입니다.

교정에서 내리는 눈을 보기란 쉽지 않습니다.

눈이 한 밤중이나 새벽에 내리면 내리는 눈이 아니라 내린 눈을 보게 됩니다.

내린 눈도 금방 치우기 때문에 하얗게 눈 덮인 교정은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물론 온 좋게 학교에 있을 때 눈이 내리면 장관입니다.

교수식당에서 밥을 먹으며 눈을 봐도

교정을 거닐며 눈을 봐도

어디서나 아름답기 그지 없습니다.

우리 학교는 평지보다 비탈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눈을 짹싸게 치우지 않으면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습니다.

아쉽지만 눈을 한쪽으로 몰아두지 않을 수가 없죠.

내린 눈을 한 곳에 모아두면 쉽게 놓지 않습니다.

겨울 햇살이 아무리 오래 비추어도

조금 녹아 내리는 정도에 그치기 때문이죠.

그래서 교정의 음지라면 다른 곳에 없는 잔설(殘雪)을 오래도록 볼 수가 있습니다.

겨울이면

학교를 찾는 이들이 줄어듭니다.

당달아 교정에서 사람은 건물 속에 들어있고

식사 시간이 아니면 건물 밖으로 잘 나오지 않습니다.

사람이 교정을 걸어가면

사람이 동양화의 한 장면처럼 반감게 느껴집니다.

눈이 내리는 날

여유가 있을 때

교수회관 창가 자리에 앉아 식사와 차를 곁들이면

어디에도 비할 수 없는 멋진 곳에 있게 됩니다.